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월호는 LA 항의 항만 적체 이슈로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 2. 3월 월삭 예배는 3월 1일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 * 3월 가정별 기도카드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인총회

- * 일시 : 2월 22일(주일) 오늘 1부, 2부 예배 후 * 장소 : 대예배실
- * 안건 1) 2025년 재정 결산 및 2026년 예산 보고(재정위원회)
- 2) 윤성민 전도사 목사 안수 후보 추천에 관한 건.

• [에스라 성경대학 안내]

- * 과목명 : " 신구약 중간사 " / 강사 : 담임목사
- * 일 시 <수요반> 3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주일반> 3월 8일(주일) 오후 1시
- ※ 모든 강의는 1시간 진행 됩니다.
- * 장 소 : 대예배실 / 교재 : 영상 및 PPT 강의

• 아버지 복음 학교 (온라인 줌 모임)

- * 일 시: 3월 6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 9시
- * 주교재: 「탕부 하나님」 - 팀 켈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 옥한흠
- * 강 사 : 윤성민 전도사

• 일대일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모집 안내

3월부터 8주간의 일정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헌신된 남플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날짜, 시간 추후공지)

- * 장소: 교회 * 문의: 담임목사, 유철우 집사

• GMC 한미연회 선교대회

- * 날짜: 6/29(월)~7/3(금) * 장소: 니과라과 (김향자 선교사 선교지)
- * 모집인원: 150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담임목사(248-310-9921)

• AI 강연 안내

제목: 인공지능 혁명: 기대와 현실,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일시: 3월 22일 (주일), 오후 1:30분
 강사소개: 이창환 교수 (현) FAU 강의 교수 (AI 전공)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27,077.55

일반현금 \$14,043.00	십일조: \$8,298.00	감 사: \$1,420.00
	주 일: \$3,194.00	기 타: \$1,131.00
건축현금 \$11,944.55	약 정: \$552.00	Harvard School: \$11,392.55
선교현금 \$1,090.00	목 장: \$590.00	중남미: \$50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사순절 첫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도 Prayer / 최혜영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삼상(1Sam) 18:6-9.....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내 삶 속에 임하는 주의 영광 >

The glory of the Lord in my life

▲ 파송찬송 Closing Hym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2월/3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2월 22일	1부	Ok목장	담당자	최혜영권사	OK목장
	2부			박우성집사	
다음주 3월 1일	1부	아름다운 목장	담당자	이미셀권사	아름다운 목장
	2부			조현숙권사	

설교요약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를 경험합니다. 선한 의도로 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함과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오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흔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해의 본질이 상대의 말에 있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섬겼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의도적인 왜곡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을 아신다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오해로 인해 오랜 시간 쫓김을 당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라고 노래했을 때, 그 노래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문제는 노래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 사람들의 말이 두려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해는 대부분 상대의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해는 내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의심을 합리화하는 신앙으로 변해갔습니다. 창세기의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분노에 반응했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분노로 옮겨갑니다. 반면 다윗은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쁨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리라” 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해는 사실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

<설교 요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조작된 오해와 왜곡된 정죄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성모독자, 율법 파괴자, 반란 선동자라는 누명을 쓰셨지만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는 억울함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리였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해를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내 영혼이 먼저 자유해집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가 옳다” 는 확신일지 모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는 믿음입니다. 오해 대신 은혜를, 비교 대신 부르심을, 방어적 민감성 대신 성령의 민감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소그룹 나눔 질문

- 1) 오해를 받았거나 관계가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 2) 다윗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 순종이 가져온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 3)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려고 노력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4)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해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삶” 을 위해 내가 실천하고 싶은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금주 애찬 섬김

	금주 (2월 22일)		다음주 (3월 1일)
	변미경, 박신희장로		조 영, 조문선목사
	부모님추모		범사감사
	OK목장		아름다운목장